# ‘막강’ 벤츠, 수입차 ‘톱10’에 6개 차종 올렸다

### 벤츠 E클래스 지난달 3931대 판매 기록 압도적 1위
### 일본제품 불매 영향 일본차 모두 5위권 밖으로 밀려나
### 벤츠·폭스바겐 등 잇단 신차 출시 수입차 시장 회복 주목

‘막강’ 벤츠가 8월 수입차 베스트셀링 ‘톱 10’에 6개 차종의 이름을 올렸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차등록대수는 총 1만8318대로, 전월 대비 7.0%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5.7% 줄어들었다.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BMW, 미니, 볼보, 지프 순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다양한 차종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독주했고, BMW는 풍부한 라인업에 힘입어 점유율 20%를 돌파했다.

렉서스, 토요타,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일본차 브랜드는 모두 점유율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차 5개 브랜드의 신차등록대수 합계는 전월 대비 47.7% 감소했으며, 점유율도 13.6%에서 7.6%로 6.0% 포인트 줄었다.

차종별 판매 순위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싹쓸이했다. 상위 10개 브랜드 가운데 6개가 벤츠였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3931대의 판매실적을 기록,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E클래스뿐만 아니라 GLC(3위), S클래스(5위), C클래스(7위), CLS(9위), GLA(10위)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GLC는 6개월 연속으로 수입 SUV 왕좌를 차지했다.

E클래스의 라이벌인 BMW5 시리즈는 이번에도 2위에 랭크됐다.

4위는 국내 판매 이후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폭스바겐 아테온이다.

6위 미니 해치는 전달에 이어 10위권 진입에 성공했으며, 렉서스 ES는 전달보다 신차등록대수가 217대 감소했지만 여전히 10위권(8위)을 지켰다.

국내 인증 지연과 물량 부족 등의 여파로 상반기 내내 침체됐던 수입차 시장은 하반기에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가 기존의 인기 차종들에 만족하지 않고 신형 GLE 등 다양한 신차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베스트셀링 SUV 티구안의 판매 재개와 신형 투아렉 출시를 앞두고 있다.

독일차들의 물량 확보에 따라 수입차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19년 8월 수입차 TOP10 〈단위:대〉

| | | |
|---|---|---|
| 1 | E클래스 | 3931 |
| 2 | 5시리즈 | 2468 |
| 3 | GLC | 833 |
| 4 | 아테온 | 587 |
| 5 | S클래스 | 581 |
| 6 | 미니 해치 | 565 |
| 7 | C클래스 | 539 |
| 8 | ES | 440 |
| 9 | CLS | 392 |
| 10 | GLA | 325 |

‘더 뉴 벤츠 A클래스’

벤츠 ‘더 뉴 GLE’

## 벤츠, 신형 A클래스·M클래스 한국시장에

### A클래스 음성인식기능 포함 첨단 편의사양
### M클래스 ‘9G-트로닉’ 자동 변속기 탑재

세번째 변신을 꾀한 벤츠 신형 A클래스가 한국시장에 등장했다. 신형 A클래스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해치백으로, 음성인식기능 ‘MBUX’를 포함한 다양한 첨단 편의사양으로 상품성을 높였다.

벤츠는 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M클래스의 4세대 모델인 ‘더 뉴 GLE’ 2종도 출시, SUV 라인업을 확장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신형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와 SUV 4세대 M클래스 ‘더 뉴 GLE’ 가솔린·디젤 모델 2종을 공식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A클래스는 1997년 제네바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소형 해치백이다. 이번에 출시된 신차는 4세대 완전변경으로, 젊고 역동적인 이상과 혁신적인 디자인, 다양한 편의품목을 앞세웠다. 벤츠 코리아는 신형 A클래스로 젊은 소비층을 정조준했다.

전면부는 낮은 보닛, LED 헤드램프, 토치형 주간주행등 등으로 진취적인 인상을 표현했다.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에는 A클래스 만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은색 루브르를 적용했다. 측면 캐릭터 라인은 길어진 휠베이스와 함께 차체가 더욱 길어보이도록 했다.

실내는 파격적이다. 운전석 위 카울을 제거, 쭉 뻗은 형태의 아방가르드한 계기판을 완성했다. 터빈 형태의 송풍구도 독특하다. 여기에 적재공간을 370ℓ로 확장하고 팔걸이나 헤드룸 등을 기존보다 넉넉하게 설계했다.

동력계는 신형 4기통 가솔린 엔진에 7단 듀얼클러치(DCT)의 조합이다. 최고 190마력, 최대 30.6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연료효율은 복합 12.3㎞/L다. 고성능·고효율을 겸비하기 위해 개선된 터보차징 기능과 캠트로닉 가변 밸브 제어 기술 등을 적용했다. 서스펜션의 반응성과 연결부 강도를 강화하는 등 주행감과 실내정숙성도 개선했다.

편의품목 중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가 눈에 띈다. 사각지대 어시스트와 액티브파킹 어시스트,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등도 포함됐다.

뉴 A220의 가격은 3830만원이다.

SUV M클래스 4세대 모델로는 더 뉴 GLE 450 4매틱 가솔린 모델과 더 뉴 GLE 300d 4매틱 디젤 모델을 선보였다.

더 뉴 GLE 450 4매틱은 3.0ℓ 트윈-터보차저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367마력과 최대 토크 51kgf·m의 주행 성능을 낸다. 아울러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와 발전기를 통합한 ‘EQ 부스트’를 설치해 22마력의 출력과 25.5kgf·m 토크가 가속 시 추가된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디젤 엔진인 ‘OM 654’ 엔진이 적용된 더 뉴 GLE 300d 4매틱은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51.0kgf·m의 성능을 갖췄다. 두 모델 모두 ‘9G-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탑재됐다.

판매가격은 300d 4매틱 모델이 9030만원, 450 4매틱은 1억1050만원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앞서 고성능 SUV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 63’을 공식 출시했으며, 앞으로 AMG를 비롯해 GLE의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고향 가기 전 무료점검 받으세요

### 자동차업계 이벤트 ‘풍성’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완성차업계가 대대적인 무료 자동차 점검 이벤트에 나섰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차·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는 ‘추석연휴 무상점검 행사’를 한다.

현대·기아차는 11일까지 자사 직영·협력 서비스센터 2224곳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

또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도 11일까지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 23곳(한국지엠 9곳·르노삼성 12곳·쌍용차 2곳)에서 무상점검 행사를 실시한다.

엔진룸 누유, 등화장치, 오일류,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점검, 오일류 보충 등이 이뤄진다. 와이퍼블레이드, 전구류 등 소모성 부품도 점검 후 필요할 경우 무상 교체하고, 인근지역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도 함께 이뤄진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무상 점검과 더불어 장거리 운행을 위한 차량 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을 안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정비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수입차업계도 안점점검 서비스에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더클래스 효성은 9월 한 달간 ‘2019 추석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더클래스 효성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고객에게 장거리 운전에 앞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냉각수, 타이어, 브레이크 등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을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차량 엔진오일과 메르세데스 오리지널 타이어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 전기차, 이마트 초급속 충전기 우선 사용

기아자동차는 이마트, 에스트래픽과 함께 전기차 우선 충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아차 전기차 고객이 전국 21개 이마트 주요 지점에 설치된 초급속 충전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아차 충전 파트너사인 에스트래픽의 앱 ‘EVRO’에서 이마트의 기아차 우선 사용 100㎾급 충전기 27기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약, 인증, 간편 결제 등을 하면 된다. 100㎾급 충전기는 쏘울 EV 기준으로 80% 충전에 54분이 소요된다.

또, 이마트에 설치된 ‘일렉트로 하이퍼 차져 스테이션’의 충전소 이용시 기아 레드포인트를 월 2만원, 연 24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충전기 사용이 가능한지 불확실한 점, 충전 대기시간이 길고 인증과 결제가 복잡한 점과 같은 충전 인프라의 문제점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